



2022학년도

이리백제초등학교

#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즐거로운 학부모 연수 자료



2022. 03.

이 리 백 제 초 등 학 교

# 차례 Contents

1.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교육 규제 .....	3
2. 학교폭력에 대해 알고 대처하기 .....	5
3. 인권교육의 시작, 가정 .....	7
4. 작은 관심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요 .....	8
5.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	10
6. 개인정보 보호 .....	14
7. 사이버 도박 예방 .....	15
8.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및 사이버 폭력 예방 .....	17
9. 저작권 보호 .....	19
10. 성폭력 예방 .....	20
11. 양성 평등 .....	22
12. 보건 교육 .....	23
13. 학부모 청렴교육 .....	26
14. 교권보호 교육 .....	31





# 아는 것이 힘!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교육 규제

## 1 용어의 의미

용어	주체	의미
선행교육	학교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미리 가르치는 것)
선행출제		학교가 현재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각종 교내 시험에서 출제하는 것
선행학습	학생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학생이 사교육 등을 통해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배워야 할 학교수업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

## 2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관련 유의사항

###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유의사항

- 편성 단계
  - 학년별, 학기별 정규 교과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및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시·도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년(군), 학교급 범위 내에서 편성함
  -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학습 내용의 위계를 고려하여 학습 순서를 배치함
- 운영 단계
  - 편성된(공시된) 학교교육과정에 비하여 학기 단위를 넘어서는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별 지도계획과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함. 즉, 학교교육과정에서 해당 학기에 편성한 교과목을 충실히 운영함
  - 편성된(공시된) 학교교육과정을 한 학기 내에서 교과 교육 내용의 순서와 비중 등을 재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한 학기 내에서 이루어진 편성과 운영의 불일치는 「공교육정상화법」에 어긋나지 않음. 단, 학교는 교과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한 학기 내에서도 교육 내용의 위계를 고려함
  - 편성된(공시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한 학기를 넘어서는 범위에서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교육과정을 수정하고 수정 사항을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학생이 배운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함. 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별 진도와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출제하지 않도록 함
- 각종 교내 대회에서 교과 교육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는 대회 참여 학생의 학년을 고려하여 교내 대회의 내용을 선정함

### 3

## 「공교육정상화법」 및 동법 시행령 추진 경과

- 「공교육정상화법」 제정('14.3.)
  - ※ 초·중·고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선행 출제 금지, 중·고교 입학전형 및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평가 금지
- 「공교육정상화법」('19.3.26.) 및 「시행령」('19.12.3.) 개정
  - ※ (법개정 사항) △ 소외지역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기간 연장 △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허용 △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지정권한 지방 이양
- '15~'19학년도 초·중·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문항 검토

### 4

## 선행학습 폐해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함.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0.3.10.)한 2019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중산층 붕괴의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아는 것이 힘! - 학교폭력에 대해 알고 대처하기

###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2 학교폭력 사안 처리

1. 학교폭력 발생 후 학교에서는 사안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2. 사안에 따라 2가지 경우로 처리됩니다.



가. **학교장 자체 해결** : 아래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가능






-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사안에 따라 조치를 받음


- 위의 학교장 자체 해결 4가지 사항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및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담당 장학사·교육 전문가들로 구성

### 3 학교폭력 유형

유형	예시 상황
 신체폭력	▶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 ▶ 때리는 행위(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 포함) ▶ 목을 조르는 행위 ▶ 꼬집는 행위 ▶ 장난을 가장해서 심하게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 학용품 등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신체부위에 침을 뱉는 행위 등
 사이버 폭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남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 ▶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인에 대해 비방·협박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 특정인에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안티카페를 만들어 협박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공유하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하는 행위 ▶ 특정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 ▶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

 <p><b>언어폭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욕설을 하는 행위</li> <li>▶험담을 하는 행위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li> <li>▶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 포함)</li> <li>▶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li> <li>▶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행위</li> <li>▶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li> </ul>
 <p><b>따돌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의적으로 따돌리는 행위(SNS에서도 포함)</li> <li>▶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SNS에서도 포함)</li> <li>▶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SNS에서도 포함)</li> <li>▶친구의 접근을 막는 등 따돌림을 부추기는 행위(SNS에서도 포함)</li> <li>▶주변 친구들이 도우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li> <li>▶책상, 소지품 등을 감추거나 버리는 행위 등</li> </ul>
 <p><b>금품갈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감추는 행위</li> <li>▶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li> <li>▶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li> <li>▶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등</li> </ul>
 <p><b>강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li> <li>▶속칭 빵 서둘, 와이파이 서둘,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등을 강요하는 행위</li> <li>▶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등</li> </ul>
 <p><b>성폭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li> <li>▶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li> <li>▶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 등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등</li> </ul>

## 4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 예방수칙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 1) 신학기일수록 자녀가 잘 씻도록 지도해주시고 의복은 깔끔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2) 친구들에게 환심을 사기위해 음식을 사주는 일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 3) 핸드폰 등의 정보통신 매체를 사용할 때 친구를 비방하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주의시켜 주세요.
- 4) 자녀가 등교하기 전 “잘하고 있어, OO 오늘 좋은데~” 칭찬으로 자신감을 갖도록 격려해 주세요.
- 5) 비싼 운동화나, 전자제품 등을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1) 친구를 놀리고 고의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 2) 피해를 당할 경우 “그만해” 등을 말하며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자기주장을 미리 연습시켜주세요.
- 3) 피해를 당하는 것이 자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고 이야기 해 주세요.
- 4)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이상증세가 보이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며 지속적인 격려와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살펴 주세요.

## 5 학교 폭력 사건을 신고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학교폭력 긴급전화 번호 : 117



## 아는 것이 힘! - 인권교육의 시작, 가정

### 1 인권이란?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며 자신의 성격과 지능, 재능, 양심 등을 발전시키는 것 모두가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함께 의미합니다.

### 2 가정에서의 인권교육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생활 속에서의 형제애, 가족 간의 예절, 나아가 이웃 간의 예절 등이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으리라 믿고 학교에서도 어린이들의 인권교육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자녀의 입장이 되어 자녀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올바른 인권지킴이가 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 3 우리 가족의 인권 지수는?

어린이가 체크(✓) 해 봅시다.

내 용 (학생용)	체 크		비 고
	○	×	
1. 화가 나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감정 표현을 한다.			※ ○가 몇 개나 되나요? ▶ 3개 이하 인권 지킴이 ▶ 4개-7개 인권 노력이 ▶ 8개 이상 서로 존중하며 더욱 노력해요
2.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때가 더 많다.			
3. 가족들 사이에도 비밀은 지켜지지 않는다.			
4. 부모님은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는다.			
5. 형제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이 귀찮다.			
6. 잘못을 했을 때는 자주 매를 맞는다.			
7.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 하신다.			
8. 형제들과 비교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다.			
9.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기도 한다.			
10.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부모님께서 체크(✓) 해 봅시다.

내 용 (학부모용)	체 크		비 고
	○	×	
1. 가족과 함께 하는 일들이 많다.			※ ○가 몇 개나 되나요? ▶ 3개 이하 인권 오염이 ▶ 4개-7개 인권 노력이 ▶ 8개 이상 서로 존중하며 더욱 노력해요
2.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는다.			
3. 아이들의 비밀은 언제나 지킨다.			
4. 부모의 감정 상태에 따라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는다.			
5.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수 있도록 한다.			
6. 아이들의 의사표현에 귀를 기울인다.			
7. 아이들이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8. 아이들 앞에서는 부부간에 정중한 언어사용을 한다.			
9.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 애들이 뭘 알겠어?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 아는 것이 힘! - 작은 관심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요

### 1 학생자살예방 교육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자살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1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동적이고 판단력이 아직 미흡한 청소년들의 경우 ‘사고’에 이어 2번째 사망원인에 대두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및 자아 존중감 등 건강한 가치관 지도를 통해 건전한 생활태도 확립과 자살예방에 대한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고 학생들의 안전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자녀와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2 청소년 자살의 특징

1. 나름대로 분명한 동기가 있음. 충동성이 강해 순간적으로 이루어짐.
2. 동반 자살이나 모방 자살로 이루어짐.
3.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추락, 투신으로 인한 자살률이 증가
4.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 사후세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 3 자살 예고 징후

1.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혹은 자살을 기도한 일이 있었던 경우
2.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자살을 시도한 경우나 친구 중에 자살을 시도했거나 자살로 사망한 경우
3. 일기장이나 친구에게 죽음에 관한 내용을 암시
4. 자살에 관한 책을 읽거나 자살 관련 사이트에 가입·활동하거나 글을 쓰는 경우
5. 스스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심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
6. 평상시 해오던 일상 활동을 거부하고 학업 성적이 계속 떨어지거나, 장기결석, 가출 등을 보일 때
7.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내거나 도전적 발언을 할 때
8. 평상시와 다른 반항, 파괴적 행동, 급격한 성격변화 등
9. 갖고 있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10. 유언장을 쓰는 경우
11. 자살에 대해 말하거나 농담하는 일이 많아질 때
12. “더 이상은 못 하겠어”, “끝내버리고 싶어”와 같은 말을 하는 경우
13. 식사량의 변화 (너무 적게 먹거나 또는 너무 많이 먹는 경우)
14. 자살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을 때
15. 침울하거나 괴로워하던 표정을 짓던 사람이 갑자기 평온한 상태를 보이는 경우



## 4 가정에서 대처방법

1. 자살 예고 징후를 무시하지 않는다.
2. 만약 자살을 주제로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면 피하지 말고 조용히 들어준다.
3. 놀라거나 비난하거나 혐오스러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4. “다 잘 될 거야”와 같이 무책임한 확신을 준다든가, “매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라는 진부한 소리를 늘어놓지 않는다.
5. 자살 예고 징후를 보인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6. 자녀와의 충분한 열린 대화시간 확보를 통한 정서의 변화를 파악한다.
7. 부모의 모범적인 생활을 통한 모델링을 제시한다.
8. 자녀의 장점과 자존감을 높여준다.
9. 가족 구성원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 자살 우려가 있는 아이에게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유형의 말

구분	내용
자책하기	“네가 이러는 것은 다 나 때문이야”
분노하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어”
비현실적인 약속하기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줄게”
상황 무시하기	“네 나이 때에는 다 그럴 수 있어”
비아냥거리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잘해”

## 5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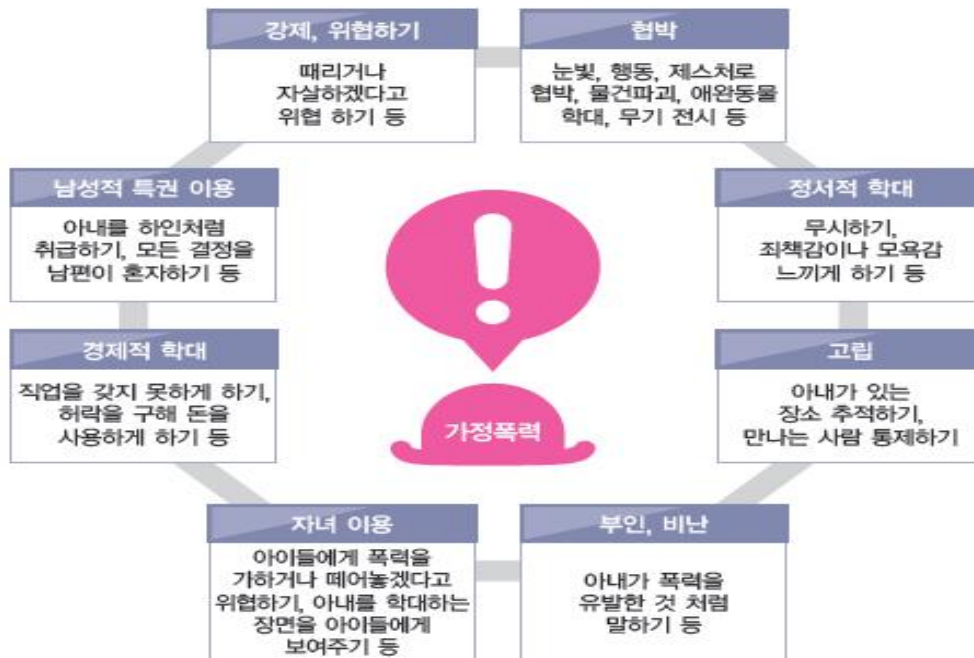
기관명	대표전화	상담내용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청소년 전화	1388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한국생명의 전화	1588-9191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한국자살예방협회	02-413-0892	
중앙자살예방센터	02-2203-0053	
관내 Wee센터, 관내 정신의학과 의원		



# 아는 것이 힘!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 1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 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2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하기

- 부모의 언행은 항상 자녀의 모델이 됩니다. 언행은 신중히 생각하신 후 해주세요.
-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체벌이나 일방적 훈계보다는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와 대화시간을 많이 갖도록 합니다.
- 필요시 학교 선생님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존중, 역지사지(易地思之), 책임 및 준법의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한 처벌이나 질책보다는 사랑과 관심으로 지도합니다.

### 3 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처하기

-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이가 주변에 있다면 담임선생님 및 학교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그리고 112에 신고해주세요.
- 나(학부모님)에게 발생했다면 112에 신고하세요. 자녀와 관련(비밀전학 등)하여 상담이 필요 할 때에는 담임선생님께 말씀 드리세요.
-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상담 전문 기관에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 4 가정폭력 인권감수성 테스트

- 1) 자신의 아이나, 배우자(남편, 아내), 동생은 자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가끔 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 아니오 ☐
- 2) 누군가 맞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맞아도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 아니오 ☐
- 3) 가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면 폭력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4)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말이 안 통하면 폭력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5) 다른 가정의 폭력을 목격해도 그것은 그 가정의 일이므로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6) 자신이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당하더라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7) 상대방에게 심한 말을 했어도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8)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폭력을 행한 사람의 기분이 안 좋았거나 술 때문일 수 있으니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위의 8개 문항 중 “예”라고 응답한 문항이 하나라도 있나요? 정답은 모두가 아니오입니다. 위의 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5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6 아동학대의 종류

가. 신체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신체적 징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등

나.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 신체적 징후 : 성장장애, 신체발달 저하, 언어장애, 원형탈모 등

다. 성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라. 방임 :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신체적 징후 : 성장지연, 발달지체,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 냄새 나는 의복, 청결하지 못한 외모, 지속적인 피로, 나른함, 조는 행위

## 7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 신고의무(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 제75조 제2항)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 112)

## 8 올바른 자녀 훈육법(아이를 야단칠 때 금기사항 5)

###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야단칠 이유는 까맣게 잊고 쌓인 감정을 폭발하며 화를 내는 것은 아이를 야단칠 때 부모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잘못 중 하나이다. 아이의 잘못을 훈육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짜증으로 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훈육의 목표를 잃고 감정에 휘말린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일 뿐이다. 이런 행동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아픈 기억으로만 남을 뿐 교육적 효과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 다른 형제와 비교하지 마세요!

아이의 반발심을 일으키는 것 중 하나가 형제·자매, 혹은 친구와 비교하는 것이다. “형의 절반이라도 따라가!” “너는 언니가 돼서 동생보다도 못하네?” “네 친구 00는 한글을 다 뻤대! 넌 할 줄 아는 게 뭐니?” 등의 말은 아이의 심정을 참담하게 만든다. 경쟁 심리를 자극해 아이를 잘되게 하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다.

## **때리는 건 절대 금물!**

아이를 때리다 보면 감정적으로 흥분할 수밖에 없다. 때리고 난 후에는 아이에게도 상처를 남기지만 부모 또한 죄책감에 시달린다. 들쭉날쭉한 부모의 감정, 신체적 체벌에 자주 노출된 아이는 감정이 풀 어지지 않고 상처로 남아 소아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인격 장애 등으로 발전 할 수 있다. 감정이 억제 되지 않을 때는 일단 자리를 피했다가 잠시 후 아이를 마주하면 극단적인 체벌을 막을 수 있다. 신체적 체 벌의 정도가 지나치면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방에 가두지 마세요!**

훈육을 목적으로 아이를 방이나 화장실에 가두는 부모가 있는데, 이런 경우 아이는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 낐다. 부모는 아이를 혼내겠다는 의도로 무심코 한 행동이지만 이런 방법은 아동학대 중에서도 정서학대에 해 당한다.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집밖으로 내쫓을 거야” 식의 위협적 발언 역시 무시되고 있다고 느끼는 순 간,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공격성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감정을 억압한 아이는 훗날 마음의 상처를 입 는다.

## **과거는 묻지 마세요!**

지나간 일을 끄집어 내 아이를 야단쳐서는 안 된다. 아이는 지금의 상황도 서러운데 이미 야단맞고 대가를 치렀던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면 수치심을 느낀다. 그뿐 아니라 지금의 잘못에 대해서도 반성하기보다 부모가 자신을 공격한다고 여겨 부모에게 적대감이 생길 수 있다.



## 아는 것이 힘! - 개인 정보 보호

###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포함)

### 2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



### 3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제24조의 2)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신체, 생명,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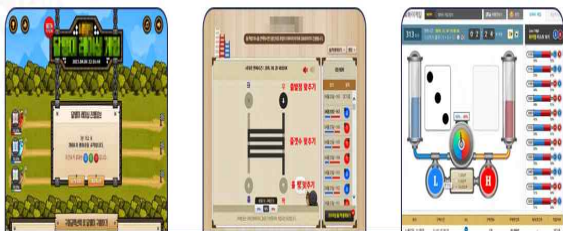
## 아는 것이 힘! - 사이버 도박 예방

### □ 코로나19 확산 후 온라인 수업 등으로 청소년 사이버 도박문제 발생 가능성 증가 우려

- 코로나19 확산 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며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상업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도박 관련 마케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불법 사이버 도박은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어른들이 쉽게 눈치 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이 아이들의 심리적인 상태와 사이버 도박문제에 대해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야 도와줄 수 있습니다.

### □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의 종류와 발견 방법

#### <최근 성행하는 불법 사이버 도박>



달팽이

사다리

로하이



파워볼

소셜 그래프

불법 스포츠 도박

#### <도박에 빠졌을 때 청소년이 보이는 모습>

- 갑자기 가족에게 선물을 하거나 용돈을 준다.
- 사주지 않은 고가의 물품들을 소지한다.
- 집안의 물건들이 없어지거나 본인의 물건을 팔거나 잃어버렸다고 한다.
- 스포츠 경기결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 알 수 없는 명의의 입출금이 반복된 거래내역이 발견된다.

☞ 자녀의 행동에서 위의 변화들이 생겼다면 도박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리도박(베팅)과 관련된 청소년 도박문제	불법대출, 대리입금으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도박은 누군가가 대리로 나 대신 도박을 해주는 <b>불법 도박의 한 종류</b> 입니다.</li> <li>○ 대리 도박은 돈을 아무리 벌어도 먹튀(먹고 튀는)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큰 금액을 잃거나 도박문제로 협박을 당해도 누군가에게 하소연 할 수도 없습니다.</li> <li>○ 최신 뉴스 기사 에서도 초등학생들이 대리도박이나 베팅에 빠진 경우가 기사화 되었습니다.. (청소년 불법 도박 심각... 브로커 활동하고 바람잡이 역할까지. <b>조선일보 2019.12.02.</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입금이란 연24% 이상 이자를 요구하는 불법고리대금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li> <li>○ 상당수 청소년들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대리 입금을 선호하기도 합니다.</li> <li>○ 고금리 대출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까운 <b>경찰서로 신고</b>하고, 경찰서에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 <b>학교전담경찰관(SPO)</b>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li> <li>○ 학교(SPO)-경찰서 신고체계 구축으로, 학교→학교전담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이 통보됩니다.</li> </ul>

#### □ 도박문제 발견시 대처 방법

- 도박문제가 의심된다면 가정에서 자녀와 '소통'하셔야 합니다.
  - 자녀와의 소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간섭'이 아니라 '지지'가 필요합니다.
  -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도박문제에 대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 신현준의 도박문제 예방교실 학부모편 <https://youtu.be/Xlu2M4WjNhk>
    -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위드(WITH) 2020.4월호 <https://www.kcgp.or.kr/pp/prCntnts/2/insttNewsList.do>  
'전문가 대담: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청소년 불법 도박으로 이어지나'
  - **도박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면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 ☞ 청소년 도박문제 선별척도(CAGI) <https://www.kcgp.or.kr/pp/gambleIntrcn/2/selfDgnss.do>
    - ☞ 전문기관(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상담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청</li> <li>- 112</li> <li>○ 전북청 사이버수사대</li> <li>- 280-817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헬프라인(전화상담)</li> <li>- 국번 없이 1336</li> <li>- 365일, 24시간 운영</li> <li>- 상담비 무료 (*통신비 무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넷라인(온라인상담)</li> <li>- 모바일PC</li> <li><a href="https://netline.kcgp.or.kr">https://netline.kcgp.or.kr</a></li> <li>- 검색창에 '넷라인' 검색</li> <li>- 상담비 무료 (*통신비 발생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자(정보제공)</li> <li>- 수신자 번호에 #1336 입력 후 문의 작성→발송</li> <li>- 정보제공 무료 (*통신비 발생될 수 있음)</li> </ul> 
--	---	--	--





## 아는 것이 힘! -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및 사이버 폭력 예방

### 1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일상 생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2)

#### ■ 인터넷 중독 예방지침

- 특별한 목적 없이 컴퓨터를 켜지 않기 - 컴퓨터 사용 시간 가족들과 협의 결정
- 컴퓨터 사용 시간과 내용을 사용일지에 기록 - 알람시계로 사용 시간 수시확인
- 운동이나 취미활동 시간을 늘리기 - 인터넷으로 식사나 취침 시간을 어기지 않기
- 스스로 인터넷 사용조절이 어려울 경우, 시간 관리 소프트웨어 설치

### 2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울하거나, 초조함, 답답함을 느끼며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병적으로 집착한 상태

#### ■ 스마트폰 중독 예방!!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방법

- 재미도 있고 도움도 되는 유용한 앱 활용 - 스마트폰 필요할 때에만 사용
- 친구들과 눈으로 대화 -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히 사용
- 시간제한 앱 깔고 푸시(알림) 기능 끄기 - 온라인에 글을 남길 때에는 신중하게 작성

### 3 사이버 폭력 및 대응 관련 안내

#### ■ 사이버 폭력 유형

최신 유형	설명
카카오톡 왕따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왕따 행위를 모바일 공간으로 옮겨와서 자행하는 것
와이파이 셔틀	스마트폰의 테더링 기능을 이용해서 피해 학생의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무선 데이터 갈취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것
게임 아이템 셔틀	게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을 피해 학생에게 상납받는 행위

#### < 사이버 폭력 대처방안 >

1. 사이버 폭력에 대해 규칙적으로 대화를 나눈다.
2. 바른 언어습관의 사용에 대해 지도하고 모범을 보인다.
3. 사이버 폭력 피해 시 학부모님들의 직접 해결보다는 학교에 도움을 요청한다.
4. 자녀들의 온라인 활동 (카카오톡, 카카오톡스토리 등)에 관심을 가진다.
5. 컴퓨터 및 스마트폰에 음란물과 폭력물을 필터링하는 프로그램 혹은 앱을 설치한다.
6. 자녀들이 문제가 생길 경우, 직접 해결하지 말고 어른과 상의할 것을 강조한다.
7.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정하고 관리를 한다.
8.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처벌보다는 그 전의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최근 개인정보를 갈취해 매매하는 사이버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 최근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SNS)이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계정정보와 전화번호를 제공하면 현금을 지급한다는 불법 광고를 본 일부 학생들이 친구, 후배 등의 계정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강제로 빼앗아 불법 광고업자 등에게 매매하는 등 사이버 폭력 발생
- ▶ 이렇게 불법으로 취득된 개인 정보는 도박, 불법 광고(스팸) 등에 이용되어 2차 피해 발생

※ **사이버폭력 피해가 일어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세심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 ▶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 사례(SNS 계정, 전화번호 갈취 등)를 자녀에게 알려주고, 피·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 ▶ SNS 계정,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의 제공은 대포 아이디(도용된 불법 아이디), 불법 광고 행위에 도용되거나, 보이스 피싱, 문자 사기 등의 사이버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매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 ▶ 자녀가 SNS 계정 등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아이디 변경·정지·탈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 사이버 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방법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를 자녀에게 사전에 알려줍니다.

■ **사이버폭력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www.cyber.go.kr](http://www.cyber.go.kr))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제보
- ▶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 [www.cyber1388.kr](http://www.cyber1388.kr) - 학교폭력에 대한 24시간 전화·문자와 카톡 상담 : 지역번호+1388, #1388
- ▶ 학교폭력신고/상담전화(117), 문자서비스(#0117)
- ▶ 푸른나무재단 : 학교폭력 상담전화(1588-9128)
- ▶ 스마트쉼센터 :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1599-0075)



## 아는 것이 힘! - 저작권 교육

### 1 저작물이란?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즉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낸 것이어야 하고,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밖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아이디어 · 절차 · 방법 · 시스템 · 개념 · 원리 · 발견 · 장치 · 원칙 · 이론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 받지 못한다.

### 2 저작권이란?

- 저작권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 ·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이며,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이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완료되는 때에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발생한다.
  -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명예나 성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 원작자나 창작자에게 부여된 권리이고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저작자에게 부여된 권리이고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저작권 보호 기간

- 일반적으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그의 사망 후 70년간이고 무명(無名)으로 공표되거나 실명(實名)이 아닌 이명(異名)으로 공표된 저작물, 영상저작물, 업무상 저작물은 공표된 때로부터 70년간 보호된다.
- 한, 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2013년 7월 1일부터 보호 기간이 20년 연장되었다.
- 실연(實演)은 실연한 때로부터 70년, 음반은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간 보호된다.
- 보호기간의 기산(起算)은 사망 또는 공표한 때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 4 저작권 Q&A

Q.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제호(제목)를 바꾸거나 변경하면 저작권 침해인가?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제호를 변경하여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물의 제호는 저작물의 내용과 함께 하나의 저작물을 이루기 때문이다

Q. 서점에서 시집 한 권을 샀다. 시집을 구입한 이상 시집에 담긴 시를 미니홈피나 카페 등에 올리는 등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가?

물건의 소유권자 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물건 속에 담긴 글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까지 취득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집에 담긴 시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미니홈피나 카페 등에 올릴 수 없다.

Q. 음반가게에서 구입한 음악CD에서 음악 몇 곡을 골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다음 학교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배경음악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음악CD를 구입했다는 것은 음악CD의 소유권만을 취득한 것일 뿐 CD속에 담겨진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까지 취득한 것은 아니다. CD 속에 담겨진 음악을 학교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배경음악으로 이용하려면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유권과 저작권을 구분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생각이며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 아는 것이 힘! - 성폭력예방

### 1 가정에서의 성폭력 예방 방법

#### ● 성폭력 예방을 위해 자녀와의 대화하기

- 일상생활에서 자녀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 평소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고 자녀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 가정, 학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들을 준수하도록 지도합니다.
- 부담스러운 주제라며 대화를 피하지 마세요.
- 성과 성폭력을 주제로 자녀와의 소통을 시도해 보세요.

#### ● 성폭력에 대한 통념 버리기

-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 NO! 87.6%는 아는 사람, 어린이와 유아의 경우 친족에 의한 피해가 각각 45.2%, 72.7%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 NO!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인하고, 저항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저항이 어렵습니다.
- 가해자는 장난인데 억울하다?  
➔ NO!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가해자의 의도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 NO! 피해자가 가해자를 따라갔다고 해서, 짧은 치마를 입었다고 해서, 소리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의 책임은 오직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2019년 상담통계자료)

### 2 성폭력 피해 시 대처 요령

#### ● 성폭력 피해 징후

신체적 징후	심리적 징후	성적 행동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주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li> <li>• 밥을 먹지 않거나 갑자기 밥이나 다른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다.</li> <li>• 성기 통증을 호소한다.</li> <li>• 손을 자주 씻는 등 청결에 대한 강박감을 행동으로 보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몽을 꾸거나 불안 증세를 보인다.</li> <li>• 평소보다 시무룩하거나 이유 없이 짜증을 낸다.</li> <li>• 특정 인물, 장소, 물건에 대한 거부 및 공포감을 나타낸다.</li> <li>• 낮에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적 행동이나 성행위를 흉내 낸다.</li> <li>• 성기나 성행위 등에 과도한 호기심을 보인다.</li> <li>• 음란물에 지나친 관심을 보인다.</li> </ul>

※ 모든 성폭력 피해 어린이에게 피해 징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드러나지 않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상처가 더 클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 ● 성폭력 피해 자녀, 부모님의 대처 방법

-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 주고, 믿어 주고, 감싸 주고, 보호해 줍니다.
-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아이의 표정, 행동 등을 관심 있게 봐주세요.
- 발생되었던 장소, 날짜, 시간, 가해자의 얼굴과 옷차림 등 자녀가 한 말을 기록해 둡니다.
- 성폭력은 자녀의 잘못이 아니며, 성폭력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음을 말해줍니다.
- 부모가 임의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 자녀와 성에 관한 대화 방법

- 텔레비전 뉴스나 드라마 등과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말할 기회를 찾습니다.
- 부모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자녀의 생각을 듣고 소통하도록 합니다.
- 성에 관한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녀에게 말할 때는 하나의 주제만으로 이야기합니다.
- 자녀를 지나치게 어린아이 대하듯 말하지 않습니다.

#### § 도움을 받을 수 있는곳

위급한 상황 ☎119, 112 여성긴급전화 ☎ 1366,

청소년긴급전화 ☎ 1388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찰서(국번없이 ☎ 117 )

### 3 학교에서의 성교육

학교에서는 국가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을 준수하여 담임교사에 의한 관련교과 성교육, 보건교사에 의한 창체 활용 성교육 등 학년별 연 14시간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 3시간)을 실시합니다.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학교 CCTV를 활용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아는 것이 힘! -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兩性平等)이란**, 남녀가 동등한 사회적 조건과 지위, 권리, 의무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양성평등 교육은 특정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인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신의 자유 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 1 가정 내에서의 부부간의 평등

**평등한 부부란?** 남편과 아내가 성적 구분에 의해 역할분담이 되어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돈벌이, 집안일, 육아, 의사결정을 분담하는 부부이며,

- 1) 남편과 아내의 시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 2)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설거지나 아이를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 3) 여성도 남성만큼 사회활동과 여가시간을 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부

상황/대화	분석	상황/대화	분석
“여자니까 바느질을 잘하지.”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성차별	“손재주가 좋아서 바느질을 잘하지.”	개인차를 고려.
“어딜 남편이 얘기하는데 말대답이야?”	평등하지 못한 가족 문화	“따지는 듯 한 말투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다시 얘기해보자.”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

### 2 자녀 양육 · 교육에 있어서 평등

-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합니다.
-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 가정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공동의 책임이자 역할입니다.
- 진로, 학업 선택, 클럽활동 선택 시 남자와 여자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배제되도록 지도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여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 아들이 친절하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라면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감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 딸들에 대해서는 예의바른 행동과 여성스러운 행동을 구별하도록 합니다. 수줍어하고 침묵을 지키고 수동적인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여성이 되지 않도록 일깨워줍니다.

상황/대화	분석	상황/대화	분석
“00이는 치마 입었을 때가 제일 예뻐.”	여성스러움을 강요	“00이는 독서할 때 제일 행복해보여.”	행동, 노력에 대한 칭찬
“가족끼리데 속옷 차림이 뭐 어때.”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음.	옷차림/행동에서 서로 예의를 지킴.	심리적으로 친밀한 성숙한 가족
“어떻게 했으면 이런 일을 당해? 부끄러워서 어디에 말하겠어?”	침묵을 강요	“네 잘못이 아니야. 부끄러워 말아라. 같이 해결하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부모

- ▶ 침묵의 방관자가 아닌 변화를 실천하는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 ▶ 성별, 연령에 앞서 ‘동료, 이웃, 사람’으로 대하고 존중해주는 가족이 됩시다



## 아는 것이 힘! - 보건 교육

### 1 흡연 예방 교육

매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청소년 온라인건강행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나라 중 흡연 시작 연령이 12.7세로 가장 낮은 편입니다.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 흡연 진입을 차단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 자녀에게 흡연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 ● 어린 나이의 흡연은 훨씬 더 해롭다.

-어릴 때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심신이 미성숙한 상황에서 담배 속 온갖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중독이 심해지고 신체발달(특히 폐의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흡연습관은 성인기에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니코틴 의존에서 더 나아가 알코올(술)이나 다른 의존성 약물에 중독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 ● 부모의 흡연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부모의 흡연은 흡연에 대한 자녀의 인식과 행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모델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친구와 가족의 흡연이 흡연욕구를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비흡연 청소년 앞에서 부모를 비롯한 가족과 친구는 흡연의 자제가 필요합니다.

#### ● 담배회사의 주 고객은 10대

평생 흡연 가능 기간이 짧은 성인보다 그 기간이 긴 청소년은 주요 마케팅 대상이 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담배회사의 대표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편의점 계산대 주변 혹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간식거리 옆에 담배광고물을 설치하고 또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 2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 ● 미세먼지 실시간 농도 확인하기

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http://www.airkorea.or.kr>)

나. 스마트폰 앱 “우리동네 대기정보” 설치: 우리동네 및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확인

####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

가.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나.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폐 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사용 권고

다.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라. 외출 후 깨끗이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마. 환기,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바.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 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방역생활

#### ● 등교 시 주의 사항

#### ● 등교 시 주의 사항

1. (필수) 등교 전 건강상태자가진단 참여 “등교가능”, “등교중지” 확인 (등교일에만 실시)
2.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나 발열(37.5도 이상)등 체크하여 “등교가능” 시 등교
3.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나 가정내에서 자가진단키트 활용하여 검사 실시, 검사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하고 증상이 호전된 후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등교
4. 등교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1-2m 정도의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
5. 교실입실 전 반드시 체온측정

#### ● 교실 생활

1.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손씻기나 손소독을 실시합니다.  
\*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 등교 하자마자 -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 마스크 착용 전·후- 화장실 이용 후 - 식사하기 전
2.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바로 버린 후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을 씻습니다.
3. 컵, 물병, 필기도구, 수건, 책 등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4.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5. 쉬는 시간 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6. 쉬는 시간도 생활 속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벗거나 모여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7. 쉬는 시간 화장실은 혼자 조용히 다녀옵니다.
8. 수업 중에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즉시 일시적 관찰실(1층 운영회의실)로 이동하여 추가 증상이 있는지 살펴본 후 보호자와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검사를 실시하거나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①	격리*(7일)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 확진자인 경우 ②	수동감시(10일)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상세설명】 ※ 질병관리청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참조①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7일) 중 등교·출근 중지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②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나는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출근중지(자택대기)를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동 내용은 3.14.(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



## 아는 것이 힘! - 학부모 청렴교육

-불법찬조금 근절, 부정청탁 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 1 배경

1.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왔으나 학교현장에 여전히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사례 존재
2.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학교문화 조성
3. 학습 부교재 선정 관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반부패, 청렴한 교직풍토 조성
4. 학습부교재 선정 관련 금품 수수 등 불법·탈법행위 사전 차단
5.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 및 청렴한 교직풍토 조성

### 2 불법찬조금 정의

1.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을 모금, 접수하는 경우
2. 간부학생 등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3.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운동부, 기숙사 등에서 임의적으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례
4.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5. 학교행사(스승의 날, 체육대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시 교사의 도시락 및 간식, 학생 간식, 교직원 선물 등
6.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현금 및 상품권, 고가의 명품백, 최근 카카오톡 선물과 같은 SNS 상품권 등)

### 3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대책

#### 1. 사전예방활동 강화

가. 투명하고 적법한 예산 운용

- 학교발전기금 및 수익자 부담 경비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적법한 절차 준수
- 집행내역은 반드시 공개(학부모, 교원 등)

나. 교직원 연수 및 학부모 홍보 강화

- 촌지수수 관련하여 학기 초, 스승의 날 전, 명절 전에 교직원 연수

- 학부모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설명회 개최시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관련 연수 실시
-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 학교홈페이지에 공개

## 2. 처분기준 강화

가. 교육공무원이 촌지·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별표2]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처분

###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100만원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나. 교육공무원이 불법찬조금 모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문책

다. 촌지 및 불법찬조금 관련한 자체연수 및 홍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처분대상

## 3.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처리방법 안내

가.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즉시 반환

나.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속기관장(학교장) 또는 행동강령관(교감 또는 원감, 교감이 없는 경우 학교장이 교사 중에서 지정)에게 신고 후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다. 신고된 금품에 대한 행동강령책임관의 처리

-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 ⇒ 폐기처분
- 멸실·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금품 등 ⇒ 사회복지시설 및 공익단체 등에 기증
-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 ⇒ 기관(학교)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학교회계에 귀속

## 4.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 홈페이지(www.jbe.go.kr)/참여마당/원클릭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신고
- 촌지수수 신고(☎ 063-239-3297 교원인사과)
- 불법찬조금 신고(☎ 063-239-3576 예산과)

#### 4 청탁금지법 위반 및 불법찬조금 처분 사례

구분	사건내용	수사·재판 결과
청탁 금지법 위반 사례	2018.4월 학부모A가 교원 B에게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외식 상품권 20만원권을 보낸 것을 교원B는 선물취소를 통해 외식 상품권을 반환하고 청탁방지담당관(교감)에게 신고함	학부모: 과태료 부과(2.5배, 50만원)
	2018.5월 학부모C가 담임교사 D에게 스승의 날을 축하한다면서化粧품을 선물하였고, 담임교사D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이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化粧품을 인도함	학부모: 과태료 부과(5배, 10만원)
	담임교사E가 있는 교무실로 학부모F가 떡 3상자를 배달시켜 두고 갔으나, 담임교사E는 해당 학부모에게 직접 떡을 반환하고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함	학부모: 과태료 부과(3배, 30만원)
	담임교사G에게 학부모H가 SNS로 기프트콘(○○커피 그린티카푸치노Tall 6개)을 보낸 것을 교사G가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선물취소를 통해 반환한 후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함	학부모: 과태료 부과(3배, 12만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직자(교직원)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제공자(학부모)에게 반환하고 청탁방지담당관(교감)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의무사항), 만약 반환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됨		
불법찬 조금 사례	○○초 배드민턴부 학부모회에서 매월 1인당 25만원(10개월, 총 39,000천원)을 건어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코치급여, 요가 강사비, 학생 간식, 훈련비 등으로 사용	.배드민턴부 코치: 중장계 요구 .학부모 17명: 수사기관 통보 .부감교사: 주의
	○○고 야구부 학부모회에서는 학부모 단체가 교육활동지원 명목으로 총14,266천원을 임의 할당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간식과 운동복 등을 지급함	.야구부 감독, 코치: 경징계 요구

#### 5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구 분		기 준	변 경
가액 범위	음식물	3만원	동 일
	선 물	5만원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 강의 등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직급별 구분 있음 (시간당 20~5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시간당 40만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원과 동일 (시간당 20~5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20~40만원)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외부 강의 등 신고	사전 신고사항	외부강의 등의 유형, 요청사유 포함	외부강의 등의 유형, 요청사유 제외
	보완 신고기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매 년	신규채용 시



# 공무원 행동강령

2019. 6. 11. 시행(일부개정)

적용  
범위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전라북도교육청에  
파견된 공무원

01

## 공정한 직무수행

### 상급자의 부당지시에 대한 처리

당해 상급자에게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사적이해 관계 직무의 회피

직무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등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 신고

###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금지

### 가족 채용 제한

고위공무원, 인사담당 공무원 등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고위공무원, 계약담당 공무원 등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본인,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금지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예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하는 경우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자신 또는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청탁 금지

02

##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 알선, 청탁 등의 금지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하는 행위 금지

###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금지

관용차량, 청사, 교사, 관사 등 공용물과 예산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 금지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금지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및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공무원은 인·허가 등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부당행위 금지, 소속 하급기관에 대한 업무·전가 및 비용, 인력부담 행위 금지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피감기관에 대해 부당한 요구 금지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 금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 금지

(예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의 가액 범위(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 기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04

## 이행관리 체계 등

###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알선·청탁,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 통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 누구든지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소속 기관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행동강령 위반 행위 확인한 경우

해당 공무원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이 강령에 위반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제공한 자 또는 제공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 및 거부 의사를 밝힘, 반환이 어려운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

###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도 교육청 : 감사관

직 속 기 관 : 총무과장(없는 경우 총무부장)

교육지원청 : 행정지원과장

공립 학교 : 교감(원감)

(없는 경우 학교장(원장)이 교사 중에서 지정)

03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외부강의등(강의, 강연, 기고 등)은 대가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신고(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은 모든 외부강의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에 적용

###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 대차 또는 부동산 대여금지,

### 경조사 통지 제한

경조사 통지 예외 : 친족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 / 신문, 방송 또는 내부 통신망 등 / 자신이 소속된 종교 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은 가능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 아는 것이 힘! - 교권 보호 교육

학부모

### 제1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 매년 2,5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주를 이뤘으나,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도 2013년 69건에서 2018년 21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01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의 변천 과정

교원의 교육활동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관련 규정이 교원지위법에 제정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현행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보호 규정은 대응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	대통령령
<p><b>舊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b> (2016. 2. 3. 법률 제13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p> <p>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규정 부존재</p>	<p><b>舊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b>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p> <p>시·도 교육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규정됨.</p>
<p><b>舊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b> (법률 제13936호, 2016. 2. 3. 공포, 8.4.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활동 중에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침해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li> <li>- 제명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함.</li> </ul>	<p><b>舊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7418호, 2016. 8. 2. 공포, 8.4.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구체적 유형 및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li> <li>- 제명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함.</li> </ul>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309호, 2019. 10. 17. 시행)

- 침해학생에 대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 퇴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강화함.
-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연 등 보호조치의 근거를 강화함.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19호, 2019. 10. 17. 시행)

-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0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입니다. 실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부분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나 법은 침해행위자를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활동 보호 규정은 주로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외의 자, 즉, 학교관리자, 교육행정기관, 동료교원, 지역주민, 언론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0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객체

## 교육활동 중인 교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규정은 교원의 신분 자체를 보호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활동과 무관하게 이뤄진 교원에 대한 위법행위에는 교원지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03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제2조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04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

### ☑ 폭행·상해(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 1) 개념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고,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신체의 안전성을 해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잡아서 흔드는 경우
- 큰소리로 폭언을 하여 피해교원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우울병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한 경우

### ☑ 협박(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 1) 개념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뜻하며,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피해가 예측되어야 합니다.

####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위험한 물건을 교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위협한 경우
- 피해교원에게 학교폭력을 은폐한 사실을 기자와 교육청에 말하겠다고 위협한 경우

### ☑ 모욕·명예훼손(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 1) 개념

모욕은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하고, 명예훼손은 공연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체적 진실을 전달하더라도 그것이 상대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특정교원의 외모를 지칭하며 경멸적으로 말하는 경우
- 다른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는 경우

### ☑ 손괴(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 1) 개념

다른 사람의 재물, 문서, 기록 등을 부수거나, 숨기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이물질들 담임교사 차량의 에어컨 배기구에 부어 손상을 입힌 경우
- 담임교체를 요구하며 교실에 있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2호)**

**1) 개념**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 및 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 등을 통하여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접촉을 강요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상담 시 허리, 종아리, 허벅지 등 일반인의 시각에서 접촉이 꺼려지는 부위를 고의로 접촉하는 경우
-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3호)**

**1) 개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① 비방할 목적으로 다수에게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판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②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보내는 행위, ③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 역시 구체적 진실을 전달하더라도 그것이 상대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폭행, 학대하고, 이를 따지는 학부모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교사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게시한 경우
- 담임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새벽시간을 포함한 수 일 동안 “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교사의) 자손들이 장래 불행할 것이다”라는 등의 저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 십여 차례 보내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 **공무집행방해 / 업무방해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호,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1) 개념**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하게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 혹은 위계로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방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무 중인 교원에 대해 폭행·협박행위를 하는 경우, 직무/업무라는 법익 또한 침해되었으므로 교육공무원인 교원인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학생을 혼내준다면,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가 관련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교사를 협박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한 경우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조,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1) 개념

성적 언동(말과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교에서 자녀 상담을 하던 학부모가 성적인 비유와 농담을 반복적으로 하여 담임교사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조,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1) 개념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체육교사에게 '수업시간에 야외 체육활동을 하지 말고 자습을 시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시험 평가에 관하여 교사에게 '시험범위를 줄이라', '시험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 쉽게 내라'라며 반복적으로 요구 간섭하는 경우

05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 **가정교육의 중요성 인식하기**

가정교육은 학교교육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정교육이 튼튼하지 못하면 학교교육이 위협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성교육이나 생활습관 개선, 관계성 교육 등은 가정교육을 통해 내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교원과 학부모의 관계 재정립하기**

교원과 학부모 간의 신뢰와 존중은 학생 보호와 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과 학교를 신뢰할수록 학생의 학습권은 보장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 교원과 학부모는 자녀(학생)를 키우는 새로운 부부와 같습니다. 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협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 학교 교육의 미래는 교원과 학부모의 역할의 연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가 해야 하는 예절교육은 가정에서 하고, 교원은 집단행동 속에서 아이들이 최소한의 규범을 준수할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한다면, 서로 의견일치를 보이는 것입니다.
-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모두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녀(학생)를 보호하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의 격려가 아닐까.  
어릴 적 부모의 따스한 한마디,  
선생님의 신뢰어린 격려 한마디로  
인생의 좌표를 굳게 설정한 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비록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작은 물결이 모여 큰 물결이 되고.  
그 힘은 일찍이 꿈꾸지도 못했던 거대한 제방을 허물어뜨린다.

-데일 카네기의 <생각이 사람을 바꾼다> 중에서-

이리백제초등학교 <http://www.irbj.es.kr> 전라북도 익산시 공동로 29

●교무실 [063]831-3477 ●행정실 [063]831-3472 ●FAX [063]831-3480